

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베트남고무그룹



베트남고무그룹(GVR), 올해 매출 13%↑ 목표

베트남의 천연 고무 생산 대표 기업인 베트남 고무그룹(Vietnam Rubber Group)이 2024년 임시 주주총회 자료를 통해 낙관적인 전망을 담은 2024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베트남 고무그룹은 올해 약 25조 동(10억 2000만 달러)의 매출과 3조 4000억 동 이상의 세후 이익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대비 각각 13%, 2% 증가한 수치에 해당한다. 베트남 고무그룹은 2025년까지 주주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구조조정 제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고무 무역 및 관광 서비스 JSC와 같은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지배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다른 7개의 회사로부터 자본을 매각할 계획이다. 또한 벤틀고무(Ben Thanh Rubber JSC)의 지배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자본 투자를 모색하고 법적 요건에 따라 비소루텍스 합자회사(Visorutex Joint Venture Enterprise)의 청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무 산업 대학, 베트남 고무 잡지, 고무 건강 관리 센터, 베트남 고무 연구소 등 4개의 기관들도 기업 운영 모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 그룹 전체의 총 연결 매출을 약 28조 6000억 동, 연평균 성장률 약 5%, 세전 연결 이익 5조 5000억 동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단기적으로 베트남 고무그룹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총 연결 매출로 135조 동, 세전 연결 이익은 약 25조 1000억 동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직원 수도 증가해 총 87,070 명의 근로자가 소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약 1억 1천만 동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 고무그룹은 2025년 말까지 핵심 사업 부문으로 고무 나무 재배 및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Vietnamnews\(링크\)](#)

Vietnam Rubber Group

베트남 고무그룹(Vietnam Rubber Group)은 베트남 총리령에 따라 2006년 설립되었다. 2020년 베트남 비상장주식시장(UPCoM)에서 호치민증권거래소(HoSE)로 (증권코드: GVR) 이전 상장되었다. 현재 베트남 고무 관련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천연 고무 생산, 고무 관련 제품 제조, 목재 생산, 산업 공단 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총 41만 헥타르의 고무 재배 지역을 관리, 매년 총 평균 32만 톤의 다양한 종류의 고무를 생산한다. 여기에는 베트남 내 약 30만 헥타르, 캄보디아에 8만 7천여 헥타르, 라오스에 약 3만 헥타르 해당하는 재배지가 포함된다. 지난해 베트남 고무그룹은 '2050년 비전 2023~2030년 단계 녹색 성장 및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발전 전략에 따라 베트남 고무그룹은 △각종 에너지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올해 대비 2030년 15%, 2050년 30% 감소시킬 것 △2030년까지 그룹의 60% 고무 재배 면적이 각종 국가 및 국제 지속 가능한 삼림 관리 인증(VFCS, PEFC, FSC 등)을 받을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더불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해당 그룹의 총 사용량의 최소 50%를 차지할 것 △총수요 대비 20~30%의 에너지를 절약할 것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을 20% 감소할 것 등의 목표를 가지고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베트남 고무그룹은 5,510억 동 of 매출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계획한 2,460억 동 of 계획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세전 이익 2,400억 동, 세후 이익 1,860억 동을 밝히며 약 두 배가량의 이익 창출을 자랑했다. 생산 과정 녹색화와 재생 에너지 사용을 증가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베트남 고무그룹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출처: [베트남고무그룹\(링크\)](#),

[VoVWorld\(링크\)](#), [Vietnam.VN\(링크\)](#)

주요기사

베트남 제조업 PMI 두달연속 기준치 넘어... 2월 50.4 전월대비 0.1p↑

베트남의 2월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가 2개월 연속 50을 웃돌며 경기 회복세를 이어갔다. S&P 글로벌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베트남의 제조업 PMI는 전월대비 0.1p 오른 50.4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PMI는 각 기업 구매담당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업계 동향 지표로 50 미만은 경기 위축, 50 이상은 경기 확장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주문 수주와 생산량은 2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고용이 반등했으며 기업심리는 크게 상승해 1년 이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구매 담당자들은 늘어난 신규 주문이 주로 해외 신규 주문 회복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신규 수출 주문은 둔화됐고 증가 폭 또한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신규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 2월 생산량 또한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마찬가지로 증가폭은 완만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소비재와 기초재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중간재는 감소했다. 한편 늘어난 주문 충족을 위해 기업들이 채용에 나서면서 고용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고, 증가 폭은 1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베트남, 한국기업 투자 유치 위한 파격적 조세정책 도입

베트남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조세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 달 29일 하노이에서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2024년 재무부 한국기업 간의 국세 관세 대화’간담회를 진행했다. 카오 아잉 뚜언 재무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30년 동안 두 나라는 경제·무역·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면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한국 기업의 재정 기여도는 매년 증가해왔으며 외국 기업 총수입의 1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원활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세금 혜택을 도입했다”면서 이외에도 행정 절차를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무부는 올해 현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중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더구루\(링크\)](#)

금융

베트남 ETF, 외국인 자본 유출 강하게 지속돼...

투자자들이 작년 주식 시장에서 10억 달러를 매도한 것에 이어 올해 첫 두 달 동안 호치민증권거래소(HoSE)에서 약 2조 4천억 동(9,720만 달러)을 순매도하며 강한 매도세를 이어갔다. 이는 최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대규모 자금 매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ETF인 DCVFM VN Diamond ETF와 DCVFM VN30 ETF의 운용사인 드래곤 캐피탈은 2024년 초부터 총 2조 동 이상의 자본 유출을 겪었다고 밝혔다. DCVFM VN Diamond ETF는 지난 두 달 동안 1조6000억 동 이상의 순유출을 기록했고, DCVFM VN30 ETF는 4090억 동 순유출을 기록했다. 작년에도 두 펀드 모두 상당한 유출에 직면하였는데, 전자는 약 3조 7천억 동 순유출된 반면 후자는 9,460억 동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ETF의 강력한 자본 유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에 대해 매파적인 입장을 유지함에 따른 것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연준은 지난 1월 회의에서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했다. 현재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베트남을 비롯해 현지 통화와 달러 간 금리 차이가 큰 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지속하여 나타나고 있다. 출처: [Vietnamnews\(링크\)](#)

컨터시

출처: [사진\(링크\)](#)

Region 2	각 구;
Region 3	각 현;
Region 4	그 외

2024 년	최저임금(월급) (단위 : VND)		
Region 1	4,680,000	Region 3	3,640,000
Region 2	4,160,000	Region 4	3,250,000

명 칭 : Cần Thơ

GRDP : 5.75% (2023년 성장률)

컨터시는 베트남 경제 규모 5대 도시 중 하나로, 남부 메콩델타 지역의 주요 중심 도시다. 인구 1,800만의 풍부한 노동력과 지속적인 도로, 항만 등의 개발로 인해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2030 메콩델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그 일환으로 호찌민-컨터 철도 건설 및 91번 국도의 확장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로써 호찌민과의 접근성은 물론이고 컨터시는 안장성, 끼엔장성, 캄보디아 국경을 연결하는 메콩델타 핵심 교통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삼성엔지니어링이 최근 12월 컨터시 내 폐수처리장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컨터시에 약 3조 500억 동(약 1,656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해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 개발업체인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VSIP가 컨터시에 산업단지 프로젝트 1단계 착공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컨터시를 중심으로 메콩델타 지역의 산업 발전의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출처: [컨터시\(링크\)](#), [글로벌이코노믹\(링크\)](#), [인사이드비나\(링크\)](#), [베한타임즈\(링크\)](#)

Tra Noc II 공단

면적: 157ha

입지: 컨터 항구 4km / 컨터 공항 3km

주요 산업: 식품 가공, 기계, 전자 부품 생산 산업 등

전기: 110/22 KV

임대료: 60-80 USD/m² (관리비 0.4 USD/m²)

전기료: 피크 시간대) 0.1 USD/ kWh

일반 시간대) 0.05 USD/ kWh

유휴 시간대) 0.03 USD/ kWh

물 사용료: 0.4 USD/m³폐수 처리: 0.28 USD/m³출처: [Kland\(링크\)](#)

O Mon 공단

면적: 256ha

입지: 컨터 항구 15km / 컨터 공항 8km

주요 산업: 식품 가공, 건축 자재 생산, 기계 장비 제조 등

전기: 110/22 KV

임대료: 100-120 USD/m² (관리비 0.2 USD/m²)

전기료: 피크 시간대) 0.1 USD/ kWh

일반 시간대) 0.05 USD/ kWh

유휴 시간대) 0.03 USD/ kWh

물 사용료: 0.4 USD/m³폐수 처리: 0.28 USD/m³출처: [Kland\(링크\)](#)

한솔테크닉스

'10년 동맹' 베트남 관세청, 한솔테크닉스 기업 우대 혜택 인증 연장

한솔테크닉스가 베트남 정부의 기업 우대 혜택 인증 기간을 연장했다. 당국과의 '10년 동맹'을 바탕으로 현지 사업 운영 효율화를 꾀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2일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전날 한솔테크닉스 베트남 법인의 하노이 공장에 대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을 갱신했다. 지난 2014년 처음 AEO 공인 기업으로 선정된 이래 3번째 갱신이다. AEO 제도는 관세 당국이 법규 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공인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우수 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다. 베트남은 지난 2011년 AEO 제도를 도입했다. AEO 인증 기업은 서류·실물 검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통관 절차의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사후 통관 검사 면제·축소 △세관 서류 사후 제출 △품질전문 검사 제도 관련 우대 △내국수출입제도 관련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세금 환급 우선권 △납부 기한 유예 등 관세 행정상의 이점도 있다. 현재 총 75개의 기업이 AEO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이중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한솔테크닉스 등을 포함해 약 15곳이다. 한솔테크닉스는 AEO 제도 갱신을 통해 행정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출처: [더구루\(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우/bhsjun@jplawvn.com /070-7011-7366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진출 연대기



한솔테크닉스는 1995년 설립되어 LCD TV의 핵심부품인 백라이트유닛(BLU), 파워모듈 그리고 태양광 모듈 등을 생산하는 코스피 상장 기업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외주 생산을 도맡아하기 때문에 한국의 폭스콘이라 불린다. 한솔테크닉스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5월 타이완우옌성 포옌에 하노이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이듬해 현지 첫 공장을 설립, 고객사인 삼성전자에 납품을 개시했다. 이곳에선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조립사업(EMS: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을 진행한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생산을 외부에 맡기는 건 극히 이례적인 경우지만 한솔테크닉스는 2015년부터 EMS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삼성전자의 주문량 급증에 따른 주문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2019년 약 36억 원을 출자하여 호찌민 법인을 설립, 동나이성에 LCD TV용 모듈인 'LCM' 생산 공장을 가동하였다. LCM은 LCD 패널에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유닛(BLU)을 결합하는 공정으로 LCM 공정을 마친 LCD 모듈에 커버를 씌우면 완제품 TV가 된다. 이곳에서 LCM 공정을 마친 LCD TV 모듈이 삼성전자에 공급된다. 한편, 한솔테크닉스는 삼성 SRR 평가 1위를 달성하는 등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작년에는 삼성전자 BLU 납품사 중 품질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우수한 기술력과 AEO 제도 갱신 등 베트남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베트남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한솔테크닉스\(링크\)](#), [더벨\(링크\)](#)